

증가추세에 있는 세계의 결핵

김영란 역 / 결핵협회 부설 복식자의원
방사선사

“

결핵사망자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아시아 지역에서만
연간 18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결핵사망자는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생산적인 15~59세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

연간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거의 300만명에 달하고 있는 데 이는 다른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수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서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지구상의 희생자 수는 급격히 증가 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에 분석·경고하였다.

WHO는 연간 신환발생자 수가 800만명인 데 이 중 400만명은 전염성환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는 2,000만명의 활동성 결핵환자가 있고 세계인구의 약 3분의 1인 17억이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다.

결핵사망자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아시아 지역에서만 연간 180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결핵사망자는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생산적인 15~59세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다.

결핵환자가 많은 나라로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등이 있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수십년 동안 결핵이 잘 감소되어 오다가 최근에 갑자기 감소 추세가 정지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결핵환자수가 1984년까지 32년간이나 계속 감소되어 오다가 현재는 증가 추세에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결핵의 발병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결핵환자의 절대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몇몇 동부 및 중앙아프리카국가들에서는 보고된 결핵환자가 지난 4~5년 사이에 거의 두배나 증가되었다.

결핵이 다시 고개를 드는 주요원인의 하나로는 HIV(Human Immunodefi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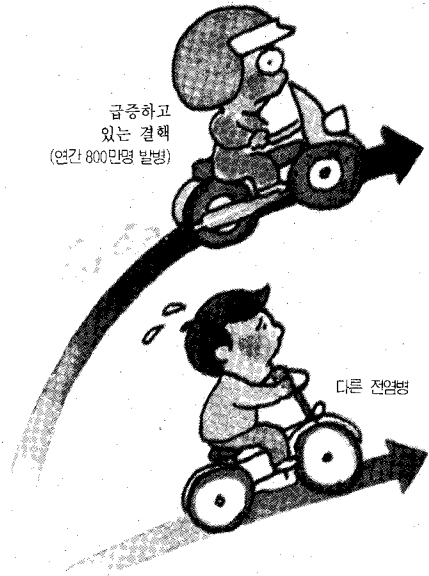
ency Virus :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원인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의 확산이다.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들이 HIV에 감염되면 면역계가 약화되기 때문에 결핵이 훨씬 더 발병하기 쉽게 된다. WHO가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결핵에 걸린 사람에서는 HIV에 감염되어 AIDS로 발병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극적으로 짧다는 것이다.

WHO는 전 세계에 HIV에 감염된 약 300만명의 사람들이 또한 결핵감염자라고 추정하고 있다. WHO의 Hiroshi Nakajima 사무총장은 “결핵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병행하는 전염병이 되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경향때문에 보건 관리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WHO는 금세기 말까지 1,500~2,000만의 사람들이 HIV에 감염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두 질병의 대칭성 때문에 WHO는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및 동남아시아에서 결핵환자 발생률 및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HO의 전염병 관리국의 결핵과 과장인 Arata Kochi 선생은 “HIV 감염률이 높고 결핵보균자 수가 많은 나라들은 폭발적인 결핵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대가족들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방 하나에 거주하는 경우가 흔하며 가족구성원중의 절반 이상이 결핵균에 감염된다.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6개월내지 12개월 동안 매일같이 약을 복용해야한다. 또한 의학치료와 약물요법을 적절히 실시하면 결핵환자의 98%를 치료할 수 있고 감염 전파의 사슬도 끊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Kochi 선생은 지적하고 있다. 소위 “단기화학요법”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은 두 개의 강력한 약제인 리팜피신과 피라진 아마이드를 추가함으로 표준화학요법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시켰다. 이 새로운 처방을 사용하면 전염성 결핵 환자들을 6개월 대신 2개월 이내에 결핵균을 더 이상 배출하지 않으므로 전염률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환자들은 상당히 짧은기간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환자관리 또한 매우 용이하게 될 것이다. 환자와 보건 담당자들은 신속하고도 극적인 호전이 일어나는 것을 거의 즉각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상태가 가시적으로 신속히 변화되면 환자들은 더욱 용기를 얻어 중단없이 치료를 완료하게 된다.

놀랍게도 결핵치료에 사용되는 약제-

리팜피신(rifampicin), 아이나(isoniazid), 피라진아마이드(Pyrazinamide),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혹은 에탐부톨(ethambutol)의 가격이 저렴하여 환자당 30달러에서 50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더욱이 입원치료를 한다고 하여도 환자당 비용은 단지 20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단기화학요법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생명 구원조치중의 하나”라고 Kochi 선생은 언급하고 있다.

보건관리들은 소아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값싼 백신(Vaccine)을 사용한다. 이 백신은 신생아들이 세균에 노출되기 전에 주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세계적으로 1세 미만의 BCG접종률은 81%이고 결핵 진단검사의 비용은 일인당 6달러 미만이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약물요법을 실시하고 모든 신생아에게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후진국가들에서

부족한 것은 자본과 결핵문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적절한 하부의료조직들이다”라고 Nakajima 선생은 말하고 있다.

자본의 부족으로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2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다.

WHO는 아무리 후진국이라하여도 7년내지 15년사이에 결핵문제를 50%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를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발견하여 치료하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이 수립되어 그 나라의 보건체계가 개선되어 질 때에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WHO는 모든 국가가 이와같은 결핵관리사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책임이 있다”고 Nakajima 선생은 말하고 있다.

WHO지역	결핵감염자수 (백만)	신환발생자수	결핵사망자수
아프리카	171	1,398,000	656,000
라틴아메리카	117	564,000	220,000
지중해동부	52	572,000	163,000
동남아시아	426	2,480,000	932,000
서태평양지역*	572	2,557,000	894,000
선진산업국가**	382	409,000	42,000
계	1,722	7,980,000	2,909,000

* 호주, 일본, 뉴질랜드 제외

**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유럽의 모든나라
세계의 결핵환자수는 연간 80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1990)

이 글은 Asian Medical News지를 번역한 글이다. 卍